

## 바티커 개인전



바티커 첫 한국 개인전  
10월 5일까지,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

바티커 / 인도 미술작가  
사회적 계층이나 위계질서는 많은 걸 드러냅니다.  
사랑이나 경제, 정치 등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.

2013-09-12 00:02

인도 작가 바티 커의 첫 한국 개인전도 열리고 있습니다.

화제의 전시회 소식, 황보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

[바티 커 개인전 / 10월 5일까지 /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]

갈퀴를 들고 천을 돌렸는데 눈을 감고 다리를 높이 쳐든 모양의 조각상.

구름 위를 걷는 여인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.

거대한 회화는 인도 여성들이 미간에 찍는 점, 즉 '빈디'를 수백, 수천 개 붙여 완성한 겁니다.

인도 여성작가 바티 커의 국내 첫 개인전입니다.

영국 런던에서 태어나 대학을 졸업한 뒤 인도로 넘어가 정착한 작가는 생활 속 사물에서 계급과 성별을 읽고 오랜 기억도 환기합니다.

[인터뷰:바티 커, 미술작가]

"사회적 계층이나 위계질서는 많은 걸 드러냅니다. 사랑이나 경제, 정치 등 많은 것들을 말입니다. 저는 이 사회적 계층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방식으로 풀이하고 싶습니다."

(Those kind of social hierarchies reveal love, they reveal economics, they talk about politics, they talk about so many things. When I talk about the ideas of social hierarchies I try to interpret it in many ways.)

YTN 황보선입니다.